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3분기(7·8·9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그리고 연이은 태풍까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재난에 각종 기후 재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7·8·9월)는 부산시민들에게 더욱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역의 좋은 보도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빛났던 보도들에 주목했습니다.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 <KBS부산> 뉴스9,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 외 4건
- <부산MBC> 유튜브 재난방송,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 외 1건
- <부산일보>,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외 2건

■ <KBS부산 뉴스9>,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 외 4건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
역학조사관에서 공공의료원까지 폭넓게 짚어본 <KBS부산>



<KBS부산>의 <뉴스9>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향후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9월 1일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역학 조사관 의무 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확진자 전체의 83%가 ‘부산의료원’의 도움으로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활약이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그간 공공의료와 관련한 논의는 의료 기관 확충과 예산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BS부산>의 이번 기획은 의료기관 외에 공공보건의료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를 돌아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심 환자 검체 분석을 맡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6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 ‘총액 인건비 제도’에 가로막힌 전문 역학 조사관 채용, 음압 병상 인프라 부실, 부산의료원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 공공의료체계의 열악함을 드러낸 <KBS부산>의 <공공보건의료 기획>을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보도 목록>

*<코로나19 최전선 ‘부산의료원’ 고군분투>(KBS부산, 7/15,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5087>

*<‘선방’했는데…허약한 부산 공공의료 민낯>(KBS부산, 7/16,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038>

*<세금 먹는 하마?…340만 도시에 딱 1곳 ‘초라’>(KBS부산, 7/17,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912>

*<하부조직만 ‘고통 감내’…“공공의료 재정립해야”>(KBS부산, 7/20,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476>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기초단체 ‘돌려막기’>(KBS부산, 9/1, 노준철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322>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공공의료를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KBS부산 노준철 기자가 이를 깊게 파고 들어줘서 꼭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의료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날짜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역학조사관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완성도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기후재난도 있지만 질병재난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영양가 있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확인한,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 <부산MBC 유튜브 재난방송>,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 외 1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상파 편성권 한계 극복한 <부산MBC>
새로운 방법으로 재난방송 접근했다



9월 3일과 7일, 두 차례 큰 태풍이 부산을 덮쳤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부산 최근접은 새벽 3시였고, 태풍 ‘하이선’은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편성으로는 부산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태풍 대응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산MBC>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부산MBC>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재난방송은 지역민과의 ‘소통’, ‘지역 밀착’이 돋보였는데요. 교통정보센터의 CCTV와 부산 전역에서 시민이 제보한 영상을 토대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놓인 부산 곳곳의 여러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시민과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바람의 세기, 주변 피해 정도 등을 교환하며 한층 지역 밀착적인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 전역의 지역민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가 태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돕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된 건데요. <부산MBC>의 유튜브 스트리밍 재난방송은 거센 비바람 소리로 밤잠 설치고 있는 지역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MBC>의 시도는 시간적 제약을 탈피했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삭’ 때에는 3시간 53분간, ‘하이선’ 때에는 6시간 52분간 재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태풍을 예보·특보하는 데서 벗어나, 태풍의 전체 흐름을 부산 시민과 함께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가져온 <부산MBC>의 새로운 시도, 유튜브 스트리밍 재난방송을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보도 목록>

*<태풍 마이삭 접근...실시간 부산은?/실시간 시청자들의 제보로 함께하는 재난방송>(부산 MBC, 9/2~3)

<https://www.youtube.com/watch?v=4lzFzg-QFHk&t=56s>

*<태풍 10호 하이선 접근...실시간 부산은?/실시간 시청자들의 제보로 함께하는 재난방송>(부산MBC, 9/6~7)

<https://www.youtube.com/watch?v=1VvHQ2GCLUM&t=6184s>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참신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지상파가 제일 빨리 끝나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정보를 얻고 싶은 지상파는 안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들 페이스북 보면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이번 <부산MBC>의 유튜브 시도는 소통의 노력에 정보성도 가미하고 있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좋긴 좋은데, 한 아나운서가 심야 시간에 노동한 거잖아요.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발성 시도에 머무르는 것 아닐까 하는, 노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보도인 건 분명합니다.”

“지상파는 유튜브를 보조적 도구로 생각하는데, 기존 편성을 자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역할로 시민과의 소통을 택한 점이 돋보입니다. 재난방송이 정보를 유용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역민에게 안전감, 안정감을 주는 것도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 부산일보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외 2건

재난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호우 당시 원전 침수 사실 드러낸 <부산일보>



부산일보



1948년 9월 10일 창간 전화 051-461-4114

제23302호 1판

busan.com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음력 7월 7일)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

스위치아드 제어동-GIB터널 발목 높아져서 빗물 차올라 원안위 '다음 날 오전 배수 완료' 터빈건물 비 새다는 의혹도 제기 지역주민에게 안 알리고 '은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식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송전 설비가 지난달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발전소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새는 의혹까지 제기된 송계를 주고 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원전 3세대 가압 경수로(APR1400) 발전용량 1400MW급으로 지난해 12월 6일 준공됐다. 최종 단 공인된 신고리 3·4호기에 빗물이 유입돼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원전 당국이 해당 사실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 기사 5건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수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원자력본부,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은 (부산일보)의 확인 취재에 지난달 23일 부산과 울산의 집중호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일부가 침수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새울원전본부가 있는 울주군에는 하루 최대 215.5mm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오후에 스위치아드 제어동 제어와 외부 전선 연결 지점에 빗물이 대거 유입됐다. 또 해당 장소의 가스 절연모선(GIB) 터널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통해 빗물이 새면서 GIB터널 역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신고리 3호기 사고 일지
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 제공

2020. 7.23	스위치아드 제어동 제어, GIB터널 침수
2019. 8.21	제어동 제어동 제어 동 부속부분 침수
2018. 10.31	후방압기 4층 방화벽면 마크 물방울 유출 수증기 유출
8.20	원자로-터빈발전기, 축적연료 교환을 위한 터빈방울 수증기
7.4	호우-비발발로 인한 송기압기 고압액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6.13	중공기압원전(IGV) 정비에 의한 원자로 정지
3.29	제압터빈 고압액 배관 터빈 정지를 위한 방울 수증기
1.24	가압기 안전관절유압 정비에 의한 원자로 수증기 정지



신고리원전 3·4호기. 지난달 폭우로 송전 설비 일부가 침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 DB

스위치아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원전이 관리하고 있다. GIB는 발전소 터빈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 전

력망으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하며, 절연체로 육분화물(SF6) 가스가 흐르고 있다.

카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비가 세서 보오 카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높은 습도로 발생한 증착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풍 '바비' 북상 오늘 밤부터 비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부산에는 25일 밤 비가 시작되고 26일에는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기준 태풍은 중심기압 976hPa, 중심회전속도 초속 32km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로 북동진하고 있다. 태풍은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을 가장 가깝게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북상에 따라 26일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20m, 순간최대풍속 초속 35m의 강풍이 불겠다. 울산과 그 외 경남 지역에 도 초속 10~16m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인명피해나 전차 등 야외 시설물 파손을 대비해야 한다. 비는 25일 저녁부터 부산,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돼 26일 아침 부산, 울산, 경남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지리산 부근 100~300mm, 그 외 경남과 부산, 울산은 30~100mm다. 태풍은 27일 오전 서울에 가장 근접한 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 저장까지 많은 비가 쏟아져 송전설비 두 곳이 침수됐지만, 다음 날 오전에 배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침수 발생은 가설 중단은 없었고, 송전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침수 당시 스위치아드 제어동 제어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물을 빼냈다"면서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히 위한 조치는 없다"고 답변했다.

원전 인력에서는 지난달 폭우 당시 신고리 3·4호기의 터빈건물에도 비가 새다는 의혹도 피겨 나가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각각의 터빈건물 1층 전기배선 상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고 한 달 뒤, <부산일보> 1면엔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8/25,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가 실렸습니다. 7월 폭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일부가 침수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원전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5면에서는 원전 당국이 침수를 시인한 장소 이외에도 발전소 일부에 대한 침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에도 '해일'이 있었다며, '물'은 원전 운영의 가장 큰 위협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일보>가 입수한 '신고리 3호기 제2차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 격납 건물 벽에서 2개의 공극(구멍)이 확인됐다고 적시돼 있었는데요. 최악의 경우 해당 구멍으로 방사성 물질까지 새 나갈 수 있어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달 전 폭우로 인한 원전 침수는 부산일보의 보도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보도 목록>

*<신고리 3·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설비 침수>(8/25, 1면,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240677525>

*<‘후쿠시마’ 후 안전 공언하고도 침수·누수, ‘명품 원전’ 맞나>(8/25, 5면, 황석하·권승혁·이승훈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033005901>

*<신고리 3호기 격납 건물 벽에 생긴 2개 구멍, 안전도 ‘구멍’?>(8/25, 5면, 황석하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419032755105>

-

<심사위원 평가의 말!말!말!>

“신고리 원전 안전 문제 보도,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보도가 되다가도 계속 무마되고 무마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산일보가 7월에 발생한 문제를 8월에 묻고 늘어져 찾아내니까 이걸 다른 언론도 받아서 이슈화시키더라고요. 부산일보의 영향이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시킨 <부산일보>의 보도 참 좋았습니다.”

“원전 문제는 부산지역 안전의 최전방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언론이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까지 입수해 건물 벽에 생긴 구멍에도 문제를 제기한 점은 참 날카로웠습니다.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 이상, 전국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주요 광고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일보>가 위기 상황을 체크해서 한 달 뒤라도 보도를 했고, 원전 안전을 점검했다는 걸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는 지역 언론 역할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 <부산일보>의 원전 관련 보도를 추천합니다.”